

◀ 주제 3 ▶

나의 꿈 나의 사랑 사과 농사

- 가야산 한방 농금 -

박 만 호
(자연농업협회 회원)

1. 서 론

1983년 지금의 성주군 송계리 857번지로 이주하여 천수답 9,000평을 매입하고, 축산(한우)으로 농업을 시작했다. 1984년 한우파동으로, 한우를 줄이고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식재, 현재는 사과성목 5,000평, 금년에 식재한 유목 4,000평이며, 배나무는 도태되었다.

나의 농사 사랑은 그 옛날 어릴 적에 남의 소작농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농토를 가지고도 8식구 식량이 모자라서 남의 농토를 얼마간 빌려서 반갈림 농사를 지었다. 애써 가꿔서 거둬들인 곡식을 지주와 반갈림했던, 그때 어린 내 가슴은 나의 장래에 내 땅 가지고 며슴도 둘 두고 소도 두 마리 먹여서 부자가 되어야지 마음을 다부지게 먹었지만, 막상 군에서 제대하고 보니 앞이 막막했다. 당장 8식구 식생활이 문제였다.

우여곡절 끝에 73년 일본SAMKO LINE(해운회사)에 선원으로 취업하게 되어 10년간 선원 생활을 하면서 돈도 조금 모으고 결혼도 했다. 애시당초 조그마한 배에 선장이라도 해야지 하던 꿈을 접어두고 아내를 설득해서 지금의 송계리로 이주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 농사를 모르고 시작했으니 그 어려움도 짐작이 가시리라 믿는다. 농사는 자연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농사꾼의 평범한 진리이리라. 처음에 사과나 무를 심어놓고 간작으로 풋고추를 심어서 생계를 꾸려가던 중 대기권의 오염으로 인해 7월 중순경 한창 수확하던 고추가 바이러스(오그랑병)에 감염되어 잎이 오그라들고 고추열매가 쭈글쭈글해서 상품성과 수확량이 떨어져서 돈이 되지 못해 낭패가 났다. 백방으로 문의하고 처방을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그때부터 자연을 알고 나를 알자는 깨달음의 농사가 시작되었다.

유기농법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은 자연농법 기본 연찬을 이수하고 나서야 무릎을 쳤다.

그리고 거듭 전문연찬을 두 번이나 이수했다. 그 해는 실패로 마무리하고 이듬해는 성공했다. 실패의 원인은 마음을 급하게 먹었던데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 농사도 마음을 비워야한다. 항상 작물의 입장에서 그 작물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갈 때 그 작물은 이상적인 열매를 맺어 준다.

1. 씨앗을 급냉실에 보관 3회 정도 반복

1. 종자 처리액 침종

1. 파종후 이식 2회

1. 농약대신 한방영양제, 현미식초, 인산칼슘, 천혜녹즙, 미네랄A.D, 수시로 살포 무농약으로 생산한 풋고추를 일본에 수출

※ 제초제는 절대 금물.

이제는 사과농사에만 전념하고 있다. 나의 사랑 사과농사로 나날이 커가는 열매를 보노라면 근심 시름도 잠시, 가는 세월도 잊고 산다. 아니 나이도 잊고 산다고나 할까.

사과는 원래 병해에 약하다. 원래 원산지가 북쪽 소련 선선한 지방이라 여름에는 무덥고 강우량이 많은 이곳에서는 여름을 견디기 힘들다.

농사는 24절기와 天氣와 地氣를 알아야한다. 天氣와 地氣가 일어서 만나 동화와 이화로 생육을 거듭한다. 먼저 地氣(땅의힘)는 자연환경 대로 만들어가야 한다. 자유 평등이 존중되는 이상 사회, 공생 공존하는 사회, 잡초를 제초제로 제거하면 이상적인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다. 토착 미생물을 배양해서 넣어주고 활성을 띠게끔, 한방과 천혜녹즙, 미네랄A, 인분주를 뿌려서 혐기와 호기균의 균형을 맞추고 처음 면적은 호맥을 심고 그 후엔 크로바를 심어서 직사광선을 막아주면 토양이 푸실푸실해진다. 지금 우리 과원 받은 지렁이를 비롯해서 응애 등 벌레들이 득실거린다. 그래도 사과에는 벌레물린데가 없다.

연 2~3회 예취를 하되 깨끗하게 예취하는 것은 금물이다. 잎의 관리는 개화기 전후해서 종자 처리액(한방 + 현미식초 + 미네랄A) 800배 약을 2~3회 살포하면 개화촉진 상해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금은 5월말~6월초 연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신초가 멈추고 과일 핵분열이 가장 왕성하고 과일속 씨앗이 6월말까지 다 크다. 이때를 사람으로 치면 입덧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인산과 칼슘이 중요하다. 한방과 수용성 인산 칼슘 + 천혜녹즙 + 유산균을 엽면시비하고 광합성 작용을 도와주고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도와 줘야한다. 6월말을 넘기면 장마기간이다 장마기간중에는 동화량이 느려져 영양공급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 이때 미량 요소 공급이 중요하다. 장마가 끝나면 바로 북더위가 시작된다. 이때는 한방 + 현미식초 + 미네랄D + 바닷물(海水또는 식염)을 엽면시비해서 더위를 이기게 한다. 비대기가 끝나고 착색기에 들면 9월말에, 한방 + 인산칼슘 + 현미식초 + 미네랄D + 바닷물 3~4회 엽면시비, 토양에 인분주를 뿌려서 탄소농도를 높인다. 떡갈나무앞에 단풍들면 사과나무앞은 깊이 단풍이 든다.

한방능금은 맛과 향이 일반 재배 능금과 차별이 확실하다. 판매처는 서울 현대, 신세계, 애경, 대구동아 백화점과 직거래, 공동생산, 공동작업, 공동판매, 공동정산으로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다.

나의 사랑 사과 농사로 앞으로 금년부터 품종갱신과 저수고 생력화로 3~4년내 전면 갱신 해서 국제 경쟁력있는 과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M9자근묘 공동 육묘장을 설치하고, 후지 계열 11개 품종을 시험재배하고 있다.

자연과 나는 하나다. 네가 편해지고 나도 편하다.

감사합니다.